

# 해 외 직 접 투 자 동 향 분 석

## (2012년 3/4분기)

2012. 11. 8.

해 외 경 제 연 구 소 산 업 투 자 조 사 실

해 외 투 자 분 석 팀

## 목 차

요 약 .....	Ⅱ
Ⅰ. 개 요 .....	1
Ⅱ. 지역별 동향 .....	2
Ⅲ. 업종별 동향 .....	6
Ⅳ. 투자기업 규모별 동향 .....	9
Ⅴ. 기 타 .....	10

## < 요약 >

□ 2012. 3/4분기 총 해외직접투자(실행기준)는 전년동기 대비 15.6% 감소, 전분기 대비 1.8% 증가한 57.0억 달러 시현

- 지역별로는 아시아, 유럽과 북미, 업종별로는 제조업, 광업과 도매 및 소매업 중심 투자

### 【지역별】

□ 주요 지역인 아시아, 북미와 중남미가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, 유럽과 대양주는 증가세

- 유럽은 급증한 제조업, 대양주는 광업을 중심으로 각각 248.2%, 47.2%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아시아 -35.4%, 북미 -42.3%, 중남미 -37.5%로 감소, 기타 중동과 아프리카는 각각 127.3%, -32.3%의 증가율 기록

※ 아시아(20.0억 달러), 유럽(14.1억 달러), 북미(11.1억 달러), 중남미(5.6억 달러)

### 【업종별】

□ 주요 업종인 제조업과 광업이 소폭 감소세를 보이는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감소세인 가운데, 도매 및 소매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증가

- 제조업과 광업 투자는 각각 -10.0%, -2.9% 감소세인 가운데, 비중이 각각 45.5%, 25.0%에 달함.
- 광업 투자는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가 소폭 증가(9.5억 달러, 전년동기 대비 9.0%)

※ 제조업(26.0억 달러), 광업(14.3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4.2억 달러), 부동산업 및 임대업(4.0억 달러)

## 【 투자기업규모별 】

### □ 전년동기 대비 대기업 투자비중 증가세

- 대기업의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4.8% 감소에도 불구하고, 전체 투자금액의 감소로 그 비중이 전년동기 72.7%에서 82.0%로 확대

## 【 투자규모별/지분율별 】

### □ 1억 달러 초과の大규모 투자비중 전년동기 대비 증가

- 금분기 1억 달러 초과 대규모 투자비중은 전체의 42.0%를 차지하여 전년동기(40.9%) 대비 증가

### □ 지분율 100%인 투자금액 비중 전년동기 대비 증가

- 한국측 지분율이 100%인 투자금액의 비중은 전년동기 66.1%에서 금분기 70.8%로 다소 증가

## I. 개 요

- 2012. 3/4분기 중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동기 67.6억 달러 대비 -15.6%, 전분기 56.0억 달러 대비 1.8% 증가한 57.0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전년동기의 686개에서 -3.5%, 전분기의 642개에서 3.1% 증가한 662개를 시현
- 지역별로는 전년동기 대비 아시아가 35.4% 감소한 반면, 유럽은 248.2%의 큰 폭 증가율을 보였으며, 주요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광업이 각각 -10.0%, -2.9% 증가율 기록

<표 1>

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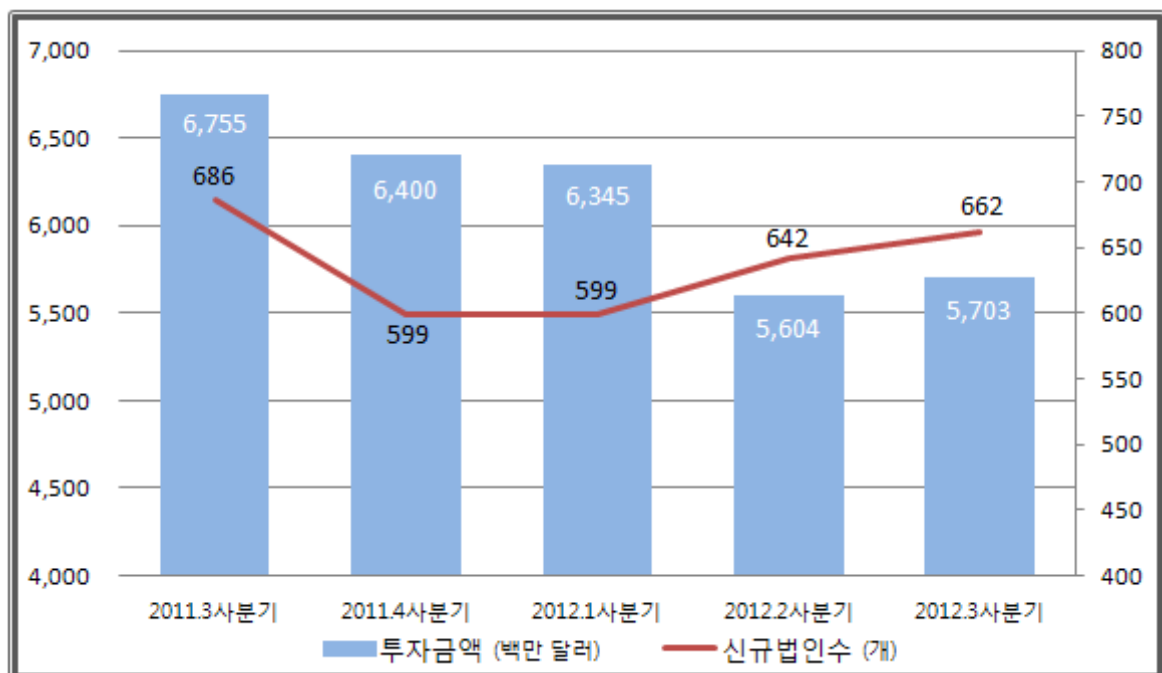
구 분	2010		2011		2011. 3/4		2012. 2/4		2012. 3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전체	24,211	2,866	25,571	2,743	6,755	686	5,604	642	5,703	662
(증가율)	19.1%	15.7%	5.6%	-4.3%	3.8%	-5.0%	-9.6%	-17.3%	-15.6%	-3.5%

\*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- 금분기 투자비중은 지역별 아시아(34.9%), 유럽(24.7%), 북미(19.5%), 중남미(9.8%), 대양주(6.8%) 순이며, 업종별 제조업(45.5%), 광업(25.0%), 도매 및 소매업(7.4%) 순

<그림 1>

최근 5분기 해외직접투자 추이 (실행 기준)



※ 금분기 투자 상위 국가(억 달러) :

미국(9.9), 네덜란드(9.3), 중국(8.0), 인도네시아(4.1), 호주(3.7)

※ 금분기 투자 상위 투자자(억 달러) :

A사 (10.5), B사 (4.5), C사 (3.9), D사 (2.5), E사 (2.1)

※ 금분기 투자 상위 현지법인(억 달러) :

A사 네덜란드 현지법인 (8.1)

D사 미국 현지법인 (2.5)

C사 미국 현지법인 (2.4)

B사 호주 현지법인 (2.0)

F사 슬로바키아 현지법인 (2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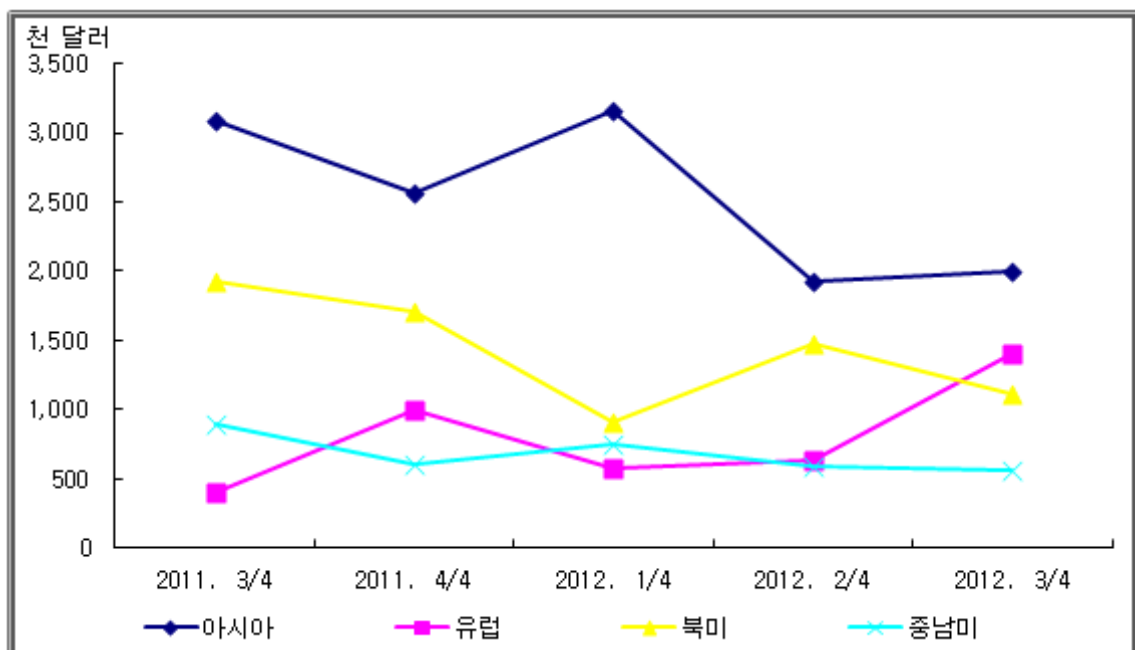
## II. 지역별 동향

### 1. 개관

-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시아, 북미와 중남미가 전년동기 대비 -35.4%, -42.3%, -37.5의 감소세를 보인 반면, 유럽은 248.2%로 큰 폭 증가

<그림 2>

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- 지역별 투자비중은 아시아 34.9%, 유럽 24.7%, 북미 19.5% 순이며, 이 상위 3개 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체의 79.1% 차지
  - 전년 동기의 경우 아시아, 북미, 중남미 3개 지역이 각각 45.7%, 28.5%, 13.2%의 투자비중을 보이며 전체의 87.4% 차지
- 국가별로 아시아에서는 중국(8.0억 달러), 인도네시아(4.1억 달러), 유럽은 네덜란드(9.3억 달러), 북미는 미국(9.9억 달러)에서 두드러진 투자 실현
- 업종별로 아시아는 제조업(9.3억 달러)과 광업(2.9억 달러), 유럽은 제조업(11.6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0.9억 달러), 북미는 광업(3.9억 달러)과 제조업(3.7억 달러) 중심으로 투자

<표 2>

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09		2010		2011		2011. 3/4		2012. 3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아시아	6,678	1,579	9,890	1,915	10,421	1,856	3,086	482	1,993	469
(비중)	32.9%	63.7%	40.9%	66.8%	40.8%	67.7%	45.7%	70.3%	34.9%	70.8%
(증가율)	-42.9%	-42.6%	48.1%	21.3%	5.4%	-3.1%	3.1%	0.2%	-35.4%	-2.7%
유럽	5,327	131	6,117	152	3,524	155	405	34	1,409	25
(비중)	26.2%	5.3%	25.3%	5.3%	13.8%	5.7%	6.0%	5.0%	24.7%	3.8%
(증가율)	57.2%	-33.2%	14.8%	16.0%	-42.4%	2.0%	-67.7%	3.0%	248.2%	-26.5%
북미	5,998	535	4,601	552	7,196	460	1,925	98	1,110	126
(비중)	29.5%	21.6%	19.0%	19.3%	28.1%	16.8%	28.5%	14.3%	19.5%	19.0%
(증가율)	14.1%	-33.8%	-23.3%	3.2%	56.4%	-16.7%	46.6%	-31.0%	-42.3%	28.6%
중남미	1,041	89	2,138	94	2,257	108	893	26	558	12
(비중)	5.1%	3.6%	8.8%	3.3%	8.8%	3.9%	13.2%	3.8%	9.8%	1.8%
(증가율)	-50.5%	-3.3%	105.3%	5.6%	5.6%	14.9%	50.2%	-16.1%	-37.5%	-53.8%

\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## 2. 지역별 동향

### 가. 아시아

- 투자금액 19.9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35.4% 감소, 신규법인수는 2.7% 감소한 469개
- 국가별로는 중국(8.0억 달러, 비중 40.4%), 인도네시아(4.1억 달러), 홍콩(2.7억 달러), 베트남(1.9억 달러), 미얀마(0.5억 달러) 순
- 아시아 투자액 중 중국 투자비중 : '09년 32.5%, '10년 36.6%, '11년 34.3%, '12. 1/4분기 29.4%, '12. 2/4분기 28.7%

- 업종별로 제조업(9.3억 달러, 비중 46.9%), 광업(2.9억 달러)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2.2억 달러), 부동산업 및 임대업(2.1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1.3억 달러) 순
- 아시아 투자액 중 제조업 투자비중 : '09년 40.9%, '10년 53.7%, '11년 53.4%, '12. 1/4분기 56.5%, '12. 2/4분기 43.8%
- 주요 투자 사업
  - E사의 인도네시아 광업 투자 : 1.9억 달러
  - G사의 중국 부동산업 및 임대업 투자 : 1.6억 달러
  - A사의 중국 제조업 투자 : 1.0억 달러

#### 나. 유럽

- 유럽의 금분기 투자금액은 14.1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25개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각각 248.2%, -26.5%를 기록
- 국가별로는 네덜란드(9.3억 달러), 슬로바키아(2.0억 달러), 터키(1.3억 달러), 영국(0.6억 달러), 벨기에(0.2억 달러) 순으로 투자
- 업종별로는 제조업(11.6억 달러, 비중 82.3%), 도매 및 소매업(0.9억 달러, 비중 6.7%), 광업(0.9억 달러)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0.2억 달러), 운수업(0.1억 달러) 순으로 투자
  - 유럽지역 제조업 투자비중 : '09년 17.0%, '10년 15.7%, '11년 17.2%, '12년 1/4분기 45.3%, '12년 2/4분기 19.3%
  - 유럽지역 도매 및 소매업 투자비중 : '09년 8.5%, '10년 5.8%, '11년 2.6%, '12년 1/4분기 20.1%, '12년 2/4분기 5.4%
- 주요 투자 사업
  - A사의 네덜란드 제조업 투자 : 8.1억 달러
  - F사의 슬로바키아 제조업 투자 : 2.0억 달러
  - H사의 터키 제조업 투자 : 1.0억 달러

#### 다. 북미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42.3% 감소한 11.1억 달러 기록, 신규법인수는 28.6% 증가한 126개 기록
- 국가별로는 미국(9.9억 달러), 캐나다(1.2억 달러)



- 업종별로는 광업(3.9억 달러, 비중 35.0%), 제조업(3.7억 달러, 비중 33.5%), 도매 및 소매업(1.6억 달러)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1.2억 달러), 출판·영상·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(0.3억 달러) 순으로 투자
  - 북미 광업 투자비중 : '09년 50.3%, '10년 27.7%, '11년 44.1%, '12. 1/4분기 78.9%, '12. 2/4분기 61.8%
  - 북미 제조업 투자비중 : '09년 11.8%, '10년 7.9%, '11년 7.2%, '12. 1/4분기 10.2%, '12. 2/4분기 12.0%
- 주요 투자 사업
  - D사의 미국 제조업 투자 : 2.5억 달러
  - C사의 미국 광업 투자 : 2.4억 달러
  - B사의 캐나다 광업 투자 : 1.0억 달러

#### 라. 중남미

- 금분기 투자금액은 5.6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12개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각각 -37.5%, -53.8%를 기록
- 국가별로는 케이만군도(1.3억 달러), 브라질(1.2억 달러), 바베이도스(1.2억 달러) 순으로,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(1.7억 달러)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(1.2억 달러) 순
- 주요 투자 사업
  - I사의 바베이도스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 투자 : 1.2억 달러
  - J사의 케이만군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투자 : 1.0억 달러
  - C사의 페루 광업 투자 : 0.2억 달러

#### 마. 기타

- 전년동기 대비 대양주 47.2%, 중동 127.3%의 증가세, 아프리카는 -32.3% 감소세 시현
- 주요 투자 사업
  - B사의 호주 광업 투자 : 2.0억 달러
  - C사의 이라크 광업 투자 : 1.0억 달러
  - K사의 호주 광업 투자 : 0.7억 달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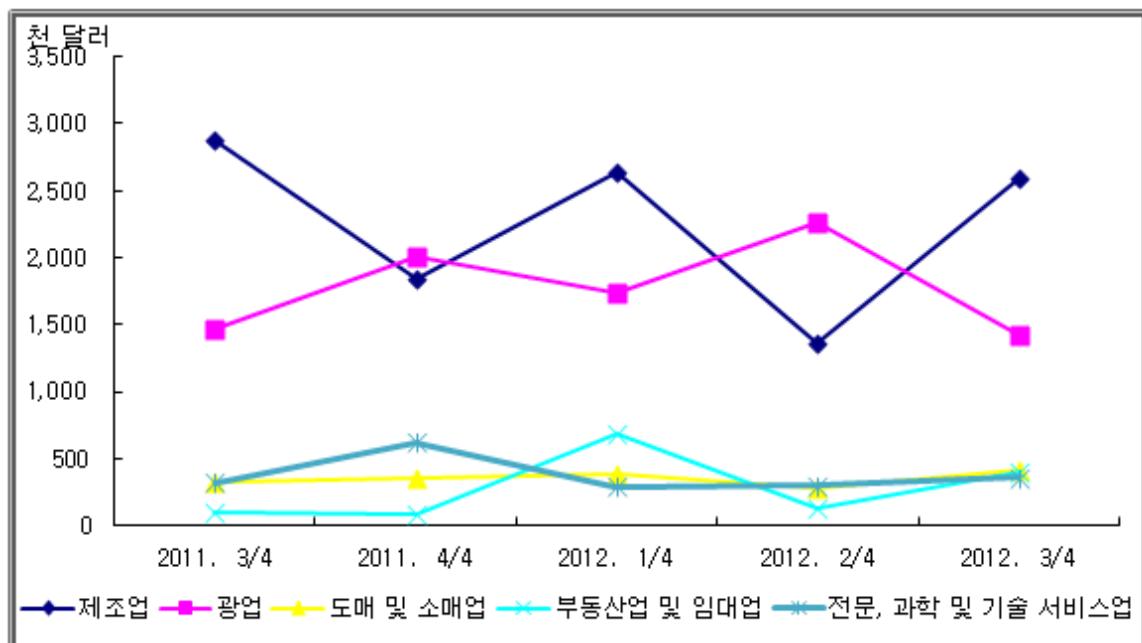
### Ⅲ. 업종별 동향

#### 1. 개관

- 전년동기 대비 부동산업 및 임대업 292.5%, 도매 및 소매업 30.9%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.2% 증가세, 금융 및 보험업 -93.5%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-47.5%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 -40.7% 등은 감소

<그림 3>

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- 주요 업종별 투자비중은 제조업 45.5%, 광업 25.0%, 도매 및 소매업 7.4%, 부동산업 및 임대업 6.9%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.3% 순을 기록하여 제조업이 가장 큰 투자 비중 차지
  - 제조업은 네덜란드(8.1억 달러), 중국(5.0억 달러), 미국(3.6억 달러), 슬로바키아(2.0억 달러), 인도네시아(1.7억 달러) 순, 광업은 호주(3.6억 달러), 미국(2.9억 달러), 인도네시아(1.9억 달러), 이라크(1.2억 달러), 캐나다(1.0억 달러) 순
  - 제조업 투자비중 : '09년 22.4%, '10년 29.4%, '11년 31.0%, '12년 1/4분기 41.5%, '12년 2/4분기 24.2%
  - 광업 투자비중 : '09년 26.8%, '10년 30.1%, '11년 29.2%, '12년 1/4분기 27.4%, '12년 2/4분기 40.5%

<표 3>

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09		2010		2011		2011. 3/4		2012. 3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제조업	4,548	847	7,107	1,118	7,931	1,060	2,885	265	2,596	245
(비중)	22.4%	34.2%	29.4%	39.0%	31.0%	38.6%	42.7%	38.6%	45.5%	37.0%
(증가율)	-35.8%	-39.3%	56.3%	32.0%	11.6%	-5.2%	57.6%	-5.4%	-10.0%	-7.5%
광업	5,440	67	7,295	53	7,464	48	1,468	11	1,426	5
(비중)	26.8%	2.7%	30.1%	1.8%	29.2%	1.7%	21.7%	1.6%	25.0%	0.8%
(증가율)	32.9%	-38.5%	34.1%	-20.9%	2.3%	-9.4%	-34.7%	-8.3%	-2.9%	-54.5%
도매 및 소매업	1,795	528	1,200	659	1,814	617	321	141	421	162
(비중)	8.8%	21.3%	5.0%	23.0%	7.1%	22.5%	4.8%	20.6%	7.4%	24.5%
(증가율)	-52.1%	-33.2%	-33.2%	24.8%	51.1%	-6.4%	4.0%	2.2%	30.9%	14.9%
부동산업및임대업	2,465	93	1,605	94	473	55	101	14	396	23
(비중)	12.1%	3.8%	6.6%	3.3%	1.8%	2.0%	1.5%	2.0%	6.9%	3.5%
(증가율)	39.5%	-68.2%	-34.9%	1.1%	-70.5%	-41.5%	-33.1%	-48.1%	292.5%	64.3%

\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## 2. 제조업

- 금분기 제조업 투자는 26.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.0% 감소, 신규법인수는 245개로 7.5% 감소
  - 1차금속 제조업(1.4억 달러)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1.0억 달러) 투자 감소(전년동기 대비 각각 85.4%, 24.7%)가 주요인
- 국가별로 네덜란드(8.1억 달러), 중국(5.0억 달러), 미국(3.6억 달러), 슬로바키아(2.0억 달러), 인도네시아(1.7억 달러) 순으로, 유럽 지역(11.6억 달러)과 아시아 지역(9.3억 달러)이 각각 44.7%, 36.0% 차지
  - 제조업 총투자액 대비 유럽 지역 투자비중 : '09년 20.0%, '10년 13.5%, '11년 7.6%, '12년 1/4분기 10.0%, '12년 2/4분기 9.0%
  - 제조업 총투자액 대비 아시아 지역 투자비중 : '09년 60.1%, '10년 74.7%, '11년 70.2%, '12년 1/4분기 67.7%, '12년 2/4분기 62.0%
- 투자금액 비중은 45.5%, 신규법인수 비중은 37.0%로, 법인당 투자금액이 업종 평균치에 가까우며 점차 증가추세임.
- 세부업종별로는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14.7억 달러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2.7억 달러), 1차 금속 제조업(1.4억 달러)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1.4억 달러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1.0억 달러)의 순

### 3. 광업

- 금분기 중 투자는 14.3억 달러, 전년동기 대비 2.9% 감소, 신규법인수는 5개로 54.5% 감소
  - 에너지 공기업 투자는 9.5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9.0% 증가
- 국가별로는 호주(3.6억 달러), 미국(2.9억 달러), 인도네시아(1.9억 달러), 이라크(1.2억 달러), 캐나다(1.0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지역별로 북미 및 대양주 지역 투자비중이 각각 27.2%, 25.4% 차지
  - 북미 지역 투자비중 : '09년 55.4%, '10년 17.4%, '11년 42.6%, '12년 1/4분기 41.3%, '12년 2/4분기 40.2%
  - 대양주 지역 투자비중 : '09년 4.7%, '10년 5.5%, '11년 16.9%, '12년 1/4분기 37.8%, '12년 2/4분기 33.2%
- 신규법인수 비중(0.8%)에 비해 투자금액 비중(25.0%)이 상대적으로 큰 바, 법인당 투자규모가 업종평균 대비 대규모
- 세부 업종별로는 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(11.4억 달러) 투자비중이 80.1%, 금속 광업(2.4억 달러)이 16.9% 차지

### 4. 도매 및 소매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4.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0.9% 증가, 신규법인수는 162개로 전년동기 대비 14.9% 증가
- 국가별로는 미국(1.6억 달러), 네덜란드(0.5억 달러) 순이며 투자비중은 각각 38.7%, 12.8%
- 세부업종별로는 소매업(3.0억 달러), 도매 및 상품중개업(0.9억 달러) 순

### 5. 금융 및 보험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0.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93.5% 감소, 신규법인 수는 7개로 전년동기 대비 66.7% 감소
  - 외환은행의 금융업 전년동기 투자실적(5.4억 달러) 대비 금분기의 실적 없음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
- 지역별로는 아시아(0.4억 달러), 중남미(0.1억 달러), 대양주(0.1억 달러) 순으로 투자

## IV. 투자기업 규모별 동향

### 1. 개관

- 금분기 중 대기업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4.8% 감소에도 불구하고, 전체 투자금액 감소로 비중 82.0%로 확대, 중소기업 투자는 38.8% 감소하여 비중 15.9%로 축소

<표 4>

###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*	2009		2010		2011		2011. 3/4		2012. 3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대기업	16,702	293	20,140	382	20,512	368	4,914	86	4,678	83
(비중)	82.2%	11.8%	83.2%	13.3%	80.2%	13.4%	72.7%	12.5%	82.0%	12.5%
(증가율)	-1.9%	-24.9%	20.6%	30.4%	1.8%	-3.7%	-11.4%	-16.5%	-4.8%	-3.5%
중소기업	3,305	1,171	3,646	1,350	4,086	1,296	1,480	326	906	319
(비중)	16.3%	47.3%	15.1%	47.1%	16.0%	47.2%	21.9%	47.5%	15.9%	48.2%
(증가율)	-43.3%	-37.4%	10.3%	15.3%	12.1%	-4.0%	71.9%	-4.1%	-38.8%	-2.1%

\* 개인 및 개인기업 등 제외

- 대기업의 신규법인수 비중은 12.5%에 그쳐, 대기업의 신규법인수 대비 투자금액(0.6억 달러)이 중소기업(2.9백만 달러) 대비 19.8배

### 2. 대기업

- 업종별로는 제조업(21.2억 달러, 비중 45.2%), 광업(13.9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3.3억 달러) 순
  - 대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 : '09년 17.8%, '10년 25.4%, '11년 27.7%, '12년 1/4분기 41.0%, '12년 2/4분기 20.4%
- 지역별로는 아시아(14.6억 달러), 유럽(13.8억 달러), 대양주(3.8억 달러) 순

### 3. 중소기업

- 업종별로는 제조업(4.5억 달러, 비중 49.7%), 부동산 및 임대업(2.0억 달러) 순
  - 중소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 : '09년 44.1%, '10년 51.1%, '11년 51.4%, '12년 1/4분기 47.1%, '12년 2/4분기 40.5%
- 지역별로는 아시아(4.6억 달러), 중남미(2.1억 달러) 순

## V. 기 타

### 1. 투자규모별

<표 5> 투자규모별 해외직접투자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09		2010		2011		2011. 3/4		2012. 3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50만달러 이하	544	1,956	588	2,166	588	2,166	199	550	191	535
~200만달러 이하	941	285	1,052	380	1,052	380	335	71	338	78
~500만달러 이하	1,321	110	1,393	140	1,393	140	393	26	400	32
~1000만달러 이하	1,126	45	1,359	72	1,359	72	515	20	414	7
~5000만달러 이하	4,106	56	4,405	78	4,405	78	1,611	10	1,072	5
1억달러 이하	2,629	13	2,231	12	2,231	12	924	4	870	2
1억달러 초과	9,659	13	13,183	18	13,183	18	2,778	5	2,418	3

- 건당 투자규모 1천만 달러 초과~1억 달러 이하 투자 비중이 전년동기 37.5%에서 금분기 34.1%로 다소 감소, 1억 달러 초과 투자 비중은 40.9%에서 42.0%로 소폭 증가

### 2. 지분율별

- 한국측 지분율 100% 투자 비중은 전년동기 66.1%에서 금분기 70.8%로 다소 증가

<표 6> 지분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09		2010		2011		2011. 3/4		2012. 3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10% 미만	430	21	306	17	178	13	40	3	37	2
~ 50% 미만	1,585	293	2,954	371	2,994	364	1,019	104	526	70
50%	656	84	192	103	688	95	140	20	136	25
~ 100% 미만	1,606	247	3,621	252	3,104	226	1,089	55	965	48
100%	16,049	1,833	17,139	2,123	18,608	2,045	4,467	504	4,039	517